

# 현안과 과제

■ 2018년 1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  
- 중국, '제2의 개혁개방' 시작되나?

# 목 차

---

## ■ 2018년 1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

- 중국, '제2의 개혁개방' 시작되나?

1. 개요 .....	1
2. 중국경제 현황과 이슈 .....	2
3. 시사점 .....	13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국경제팀    :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8년 1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

#### ■ 개요

2018년 1분기 중국 GDP는 6.8%로 소비 및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4월 10일 보아오(博鳌)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금융시장 개방, 수입 확대 등 개방화 플랜도 가속되는 등 향후 중국경제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최대의 개방화 조치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 중국경제 현황과 이슈

① (소비) 소비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강화. 중국 소매판매액은 2017년에 36억 6,261억 위안(약 6,226조 원)을 달성하면서 GDP 총액 대비 비중도 44.3%를 기록했다. 또 인터넷, 모바일의 보급과 함께 2017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액도 전년대비 30.7% 증가한 5조 4,806억 위안(약 932조 원)을 기록했다. 동기간 중국의 도시인구 1인당 가처분소득도 전년대비 8.3% 증가하였는데, 2015년보다도 16.7% 증가한 규모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득 및 취업심리가 2016년 4분기부터 빠른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중국은 국민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의료, 사회보장, 주거 등 민생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렸고, 내수소비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화장품, 의류제품 등 187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평균 17.3%에서 7.7%로 대폭 인하했다.

② (투자) 건설투자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자본의 투입효율성은 다소 개선. 최근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투자를 견인하던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빠르게 하향세를 보이면서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입자본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한계고정자본계수(ICOR)가 2010년 3.8배에서 2015년 12.2배로 악화됐다가 2017년 7.6배로 다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부동산투자 부문에서는 신규개발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고, 또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출제한, 구매제한 등 정책을 실시하면서 올해 부동산 신규투자 보다는 재고소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수출) 對美 통상갈등이 확산될 경우 수출환경 악화 불가피. 중국의 수출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외형적으로는 대외교역이 확장세를 보인다. 2018년 2월 누적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對美 수출증가율은 24.9%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동기간 전자직접회로, 다이오드, 휴대폰부품, 자동차 부품, ICT제품 등 중국의 8대 수출품목의 對세계 수출증가율도 전년동기 대비 19.6%나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對美 통상환경 악화가 현실화 될 경우 위안화 가치절상 등으로 중국의 수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對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의 전략육성산업(중국제조 2025' 품목) 중심의 1,300여 개의 제품에 대한 고율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산업·무역거점 개방) 금융·제조업부문 확대 개방 및 자유무역거점 개방. 중국은 환경부문에서 올해부터 자국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

해 연간 30~40억 달러 규모의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증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연간 4,000억 위안(약 68조 원) 규모의 기업세 금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보아오(博鰲)포럼에서 금융부문을 외국계 자본에 개방할 것에 대한 11개의 조치를 전격 발표하였다. 특히 은행, 보험, 증권, 자산관리社의 對중국 진출문턱이 대폭 낮아져 외국계 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이 쉬워질 예정이다. 더욱이, 중국 수도권 지역 제조업 배후기지인 숭안지구(雄安新區)와 최대 자유무역지구인 하이난자유무역항(海南自由貿易港)에 대한 개발·개방 계획도 발표하였다. 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은 소비국가로의 전환 가속화와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금융 부문의 대외개방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발지구 및 자유무역항구 개발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 2018년 1분기 중국경제 주요이슈의 현황과 의미 >

구분	현 황	한국에 대한 의미
소비	-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증가 - 온라인 기반의 소비가 급속 성장 - 주요 소비품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환경개선 기대 - 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기반 쇼핑여력의 확대에 사업기회 가능성이 커짐
투자	-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 - 부동산부문 신규투자 둔화	-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부동산 연관산업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이 상존
수출	- 주요국과의 수출 급증 - 단, 對美 통상갈등과 위안화 가치 절상에 통상환경 악화 상존	- 미중 통상갈등이 격화될 경우, 글로벌 중간재(냉연, 열연, 철근 등) 가격 하락에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가능성도 있음
산업 · 무역 거점	- 환경정책 강화 - 금융업 개방 가속화, 제조업 부문 세금부감 경감 - 제조업기지, 자유무역항 개발	- 환경정책 강화에 단기간 한국 등 국가의 일상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 우리 금융업의 對 중국 진출 기회 확대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우리 제조업과의 경쟁 심화 예상 - 경제개발구, 자유무역구 개발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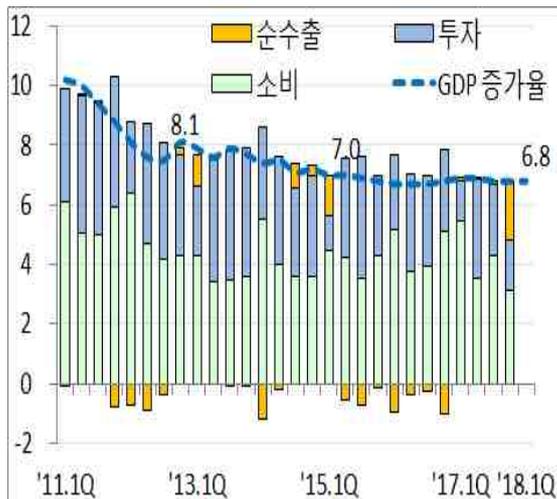
■ 시사점

2018년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은 대외개방 확대 등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중국경제에 나타날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중국 내수시장의 질적 확대에 따른 對 중국 투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부동산 투자 둔화에 따른 對 중국 중간재 수출 타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상응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통상갈등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외국계 및 자국 기업에 친화적인 금융·제조업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에서의 기회활용과 제조업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 1. 개요

- 최근 중국경제가 소비 및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되면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장 개방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향후 개방화 가속 기대감이 커짐
  - 1분기 중국경제는 소비와 수출에 힘입어 6% 후반대 성장세 지속
    -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6.8%로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6%대 성장이 지속
    - 특히, 1분기 소비뿐 아니라, 외수경기의 빠른 회복세가 안정적인 성장세에 기여
  - 한편, 올해부터 중국경제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자유무역항 구축 등 시장 개방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제2의 개혁개방 기대감이 증대
    - 지난 4월 10일 '2018 보아오(博鳌)포럼1)'에서 시진핑 주석은 금융시장 개방, 수입확대,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4대 개방화 로드맵을 제시
    - 한편, 4월 13일 하이난(海南) 경제특구 지정 30주년 행사에서 2035년까지 하이난성을 세계 최대 친환경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한다는 플랜을 발표
- 이에 본보고서는 1분기 중국경제 동향과 최근 개방화 플랜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 %p)



자료 : 國家統計局.

< 2018년 중국경제 개방화 플랜 >

구분	주요 방향
시장 제한 완화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부문 외자 진입 제한 완화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산업 외자 지분 제한 완화
수입확대	- 자동차 및 일부 제품 수입 관세 인하
투자환경 개선	-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상반기 예정)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재편, 지재권 보호 강화
친환경 무역항 구축	- 2035년까지 하이난성(海南)을 세계최대 자유무역항으로 재편 구상

자료 :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중국 하이난성 정부 보도자료로 정리.

1) 중국 보아오(博鳌)포럼은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며 2001년에 처음으로 출범함. 올해 보아오 포럼에 시진핑 주석이 3년만에 참석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음.

## 2. 중국경제 현황과 이슈

### ① (소비) 소비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강화

○ 최근 중국은 온라인 기반의 소비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체 소매판매도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중국 소매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GDP 총액 대비 44.3%를 달성
  - 연간 소매판매 총액은 2013년 24조 2,843억 위안(약 4,128조 원), 2015년 30조 931억 위안(약 5,116조 원), 2017년 36조 6,261억 위안(약 6,226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
  - 이에 따라 연간 소매판매액의 GDP대비 비중은 2013년 40.8%, 2015년 43.7%에서 2017년에는 44.3%로 상승
- 인터넷, 모바일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쇼핑규모도 연간 30%의 속도로 성장
  - 2017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액은 전년대비 30.7% 증가한 5조 4,806억 위안(약 932조 원)을 기록
    - ※ 전체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액 비중 : 2015년 10.8%, 2016년 12.6%, 2017년 15.0%
  - 또한, 동기간 중국의 최대 쇼핑명절인 알리바바그룹 광군제(매년 11월 11일)의 1일 매출액도 전년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1,682억 위안(약 29조 원)을 기록

< 중국 소매판매액 추이 >  
(조 위안) (비중, %)



자료 : 國家統計局.

< 중국 온라인 쇼핑 현황 >  
(억 위안) (억 위안)



자료 : 國家統計局, Alibaba集團.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또한, 도시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심리도 빠르게 개선

- 도시인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평균소비성향도 67~68% 수준

- 지난 2017년 중국 도시인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36,396위안으로, 2015년 31,195위안보다 16.7% 증가
- 2017년 도시인구 1인당 소비지출도 전년대비 5.9%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2015년 21,392위안보다 14.3% 증가
- 따라서 도시인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7~68%대를 기록

- 또한, 소비자들의 소득심리와 취업심리도 빠른 개선 추세를 보임

- 중국인민은행의 도시양케이트 조사<sup>2)</sup> 결과, 소비자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득 및 취업심리가 2016년 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그 추세가 2018년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미래 소득심리는 2015~2016년 분기별 평균 50.5%에서 2017년 이후 평균 53.6%로 확대됨

< 도시인구 1인당 가처분소득과 지출 >  
(위안) (%)



자료 : 國家統計局, 현대경제연구원.  
주1)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소비지출은 주거비, 음식품비 등 포함.

< 주요 소비자 심리 지표 현황 >  
(%)



자료 : 中國人民銀行.  
주 : 각 지수 = '긍정'응답비율\*100% + '비긍정'응답비율\*50%.

2) 중국인민은행 '도시양케이트 조사'는 1999년부터 전국 20,000명의 은행고객을 상대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조사임.

○ 더욱이, 올해 중국은 내수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 주거 등 서민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주요 수입제품의 수입관세율도 대폭 인하

- 중국은 민생보장과 국민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의료, 사회보장, 주거 등 민생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림

- 올해 의료·보육 관련 지출 예산액은 209억 위안(약 3.6조 원)으로 지난해 집행액 134억 위안보다 55.5%나 증가
- 보장성주택(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주거보장 예산액도 전년대비 5.1% 증가한 444억 위안으로 책정
- 사회보장·취업 관련 지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8.5% 늘렸고 교육관련 지출도 전년대비 6.5% 늘림

- 또한, 최근에는 내수소비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화장품, 의류제품 등 187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평균 17.3%에서 7.7%로 대폭 인하

- 중국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187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을 17.3%에서 7.7%로 인하함
- 특히 해외에서의 구입이 많은 기저귀는 무관세화 했으며, 소형가전 등 품목은 기존 32%에서 16%로 대폭 인하
- 또 최근 3월 양회(兩會)와 4월 보아오(博鰲)포럼에서는 올해 자동차 분야 수입관세율도 현행 25%에서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

< 올해 주요 민생지출 항목의 예산액 > (억 위안)



자료 : 財政部(2018年中央本級支出預算表).  
 주1)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주2) 2017년은 집행액, 2018년은 예산액.

< 올해 주요 수입품목의 변동 관세율 > (수입관세율,%)



자료 : 財政部.  
 주 : '자동차'는 수입관세율 인하 예정 품목임.

② (투자) 건설투자 둔화세가 지속되나, 투입자본의 효율성은 다소 개선

○ 최근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입자본의 효율성도 낮은 수준

- 건설투자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의 의존도가 높아 건설투자의 감소에 따라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하향세

· 전체 고정자산투자를 견인하던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6%대로 추락

※ 2017년 기준 건설투자는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69.9%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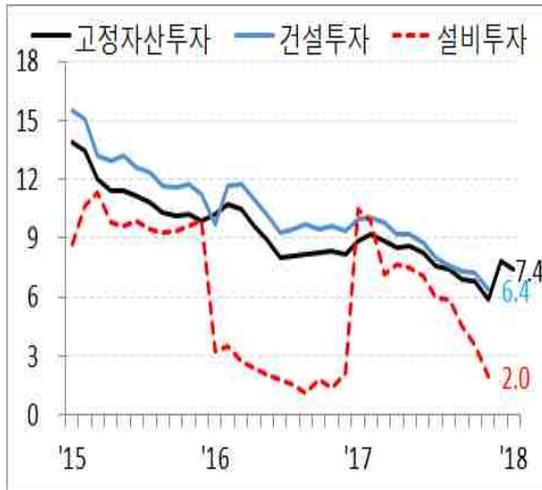
· 2016년 이후부터 기업부문 과잉생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빠르게 하락

- 다만, 자본의 효율성은 2015년 이후 점차 개선세로 돌아섬

· 2010년 3.8배이었던 중국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sup>3)</sup>는 2011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 10.3배, 2016년 10.8배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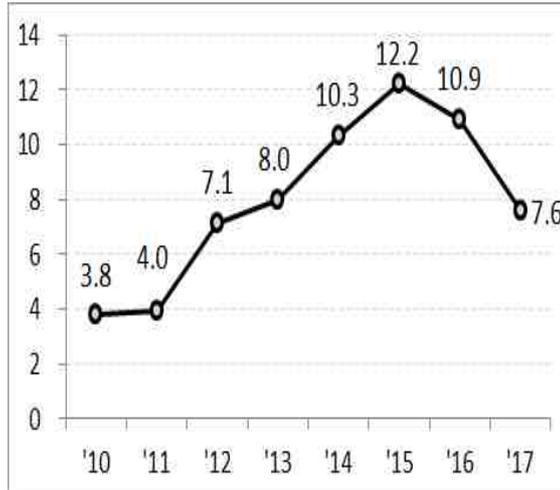
· 2017년에는 7.6배로 하락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점차 개선

<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증가율,%)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총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8년은 3월까지 누적기준, 건설·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 12월 기준.

< 중국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  
(배)



자료 : 國家統計局, 현대경제연구원.  
주 : ICOR = I / ΔGDP = It / (GDPt - GDPt-1).

3)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는 한 단위의 산출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단위를 의미하며,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ICOR = I / \Delta GDP = I_t / (GDP_t - GDP_{t-1})$$

○ 한편, 올해 부동산 부문에서는 구매제한(限購), 가격제한(限價) 정책을 강화하면서 건설투자는 당분간 둔화세가 예상된다

- 최근 부동산개발투자, 주택시공면적 등의 증가율이 하향세를 보이는 등 올해 신규 주택개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은 2016년 4분기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신규로 착공되는 주택시공면적 증가율도 2016년부터 최근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등 부동산 신규개발 속도가 점차 느려짐

-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출제한, 구매제한 등 정책을 실시하면서 올해에도 부동산 신규투자 보다는 재고소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2017년 3월에는 샤먼(廈門)에서 처음으로 주택판매제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전국 40여개 도시에서 주택판매제한 정책을 실시
- 올해 들어서도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대출제한, 주택구매 제한 및 주택의 상한가 제한 등 정책을 실시
- 부동산 제한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중국 부동산은 재고 소진에 주력할 예정

< 주택시공 및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 > < 2018년 주요도시의 부동산 억제정책 >  
(증가율,%)



자료 : 國家統計局.

구분	도시	주요 내용
대출 제한	상하이	부동산개발투자 대출 관리 강화
	베이징	불법에 대한 관리, 단속, 처벌 강화
	허베이	첫 주택 대출이자 5~10%, 두 번째 주택 대출이자 20%로 상향
	톈진	부동산 대출이자 통제 강화
구매 가격 제한	산야	신규주택가격은 2017.2월 기준 이하로 제한
	우한	신규주택가격 상한제 실시
	츠보	주택가격 상한제 실시, 주택매매 제한
	창사	상품방(주택, 오피스텔) 상한제 실시

자료 : 光大証券研究所.

③ (수출) 對美 통상갈등이 확산되면 수출환경 악화 불가피

○ 중국의 수출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외형적으로는 대외교역이 확장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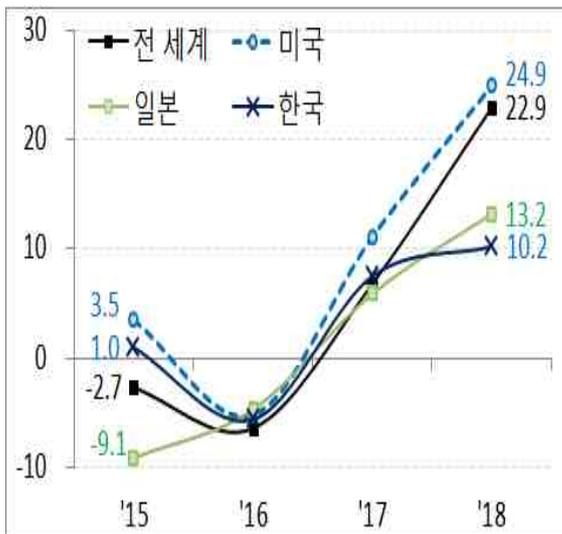
- 주요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2017년부터 급격히 회복

- 2018년 2월 누적기준으로 중국의 對 세계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2.9% 증가
- 동기간 최대 교역파트너인 對美 수출증가율은 24.9%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의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13.2%,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10.2%를 기록함

- 또한, 반도체, ICT제품, 자동차 부품 등 주요 8대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도 급격히 상승

- 전자직접회로, 다이오드, 휴대폰부품, 자동차부품, ICT 제품 등 중국의 8대 수출품목의 對 세계 수출총액은 2017년 기준 전년대비 7.7% 증가한 5,746억 달러로 나타남
- 더욱이, 2018년 2월까지 누적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9.6% 증가한 905억 달러를 기록
- 특히, 올해 들어 휴대폰 부품, 자동차 부품의 수출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등 급속으로 성장

<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  
(증가율,%)



자료 : KITA.

주 : 2018년은 2월까지 누적기준임.

< 중국 8대 수출품목의 수출 현황 >  
(억 달러)

구분	'15	'16	'17	'18.2
8대 품목	5,759 (1.2)	5,334 (-7.4)	5,746 (7.7)	905 (19.6)
휴대폰부품	2,134 (9.3)	2,018 (-5.4)	2,201 (9.1)	358 (24.3)
ICT제품	1,373 (-16.0)	1,251 (-8.9)	1,422 (13.7)	198 (10.6)
전자직접회로	701 (14.5)	638 (-9.0)	666 (4.4)	111 (20.7)
자동차부품	283 (-0.7)	285 (0.7)	311 (9.1)	55 (27.9)
다이오드	336 (9.8)	273 (-18.8)	267 (-2.2)	44 (12.8)
영상표시장치	282 (-6.9)	283 (0.4)	315 (11.3)	48 (26.3)
조명	358 (15.1)	319 (-10.9)	296 (-7.2)	46 (9.5)
가구류	292 (2.8)	267 (-8.6)	268 (0.4)	45 (25.0)

자료 : KITA 자료로 HRI 재구성.

주1)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8대 품목(HS4단위)이 중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2%임(2017년 기준)

○ 반면, 올해에는 對美 통상환경 악화가 현실화 되면 위안화 환율 하락 등으로 중국의 수출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상존

-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對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7.1%(3,752억 달러 적자)에 달함
- 이에 대응해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통상법 301조' 적용 대상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
- 또, 최근(4월 2일)에는 중국의 전략육성산업('중국제조 2025' 품목) 중심의 1,3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

- 더욱이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3.02%나 절상되면서 올해 중국의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 될 가능성도 있음

- 중국 외환관리국(CFETS) 위안화 환율지수는 지난 2017년 5월 92.3p를 기록한 뒤 최근 2018년 4월 96.6p까지 오르는 등 위안화 가치가 꾸준히 절상
  - ※ 2018.1~2018.4 사이 CFETS 위안화환율지수는 1.7p 상승
- 위안화의 달러대비 환율도 2017년 1월 6.93위안/달러를 기록한 뒤 2018년 4월에는 6.31위안/달러까지 하락(위안화의 가치절상)
  - ※ 2018.1.2~2018.4.9 사이 위안/달러 환율은 3.02% 하락, 2017.1.3~2018.4.9 사이 9.19% 하락

< 미국의 주요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  
(억 달러)



자료 : KITA.

< 중국 위안화 환율지수 >



자료 : 中國外匯交易中心(CFETS).  
주 : 지수의 상승은 위안화의 가치상승을 의미.

④ (산업·무역거점 개방) 금융·제조업 부문 확대개방 및 자유무역거점 개방

○ 중국은 올해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감세조치, 금융부문 개방, 자유무역거점 개발 등 대외개방 조치를 확대 실행 예정

- 중국은 올해부터 환경 분야에서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연간 30~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고체폐기물<sup>4)</sup>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한국, 미국 등이 영향을 받음
  - 중국은 올해부터 자국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폐금속, 폐플라스틱, 폐섬유 등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
  - 이 외에도 올해 3월 양회에서 중국은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시스템 구축, 생태계 보호, 친환경 생활방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 과제도 제시
- 제조업 부문에서는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증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연간 4,000억 위안(약 68조 원) 규모의 세금부담을 낮출 예정
  - 오는 5월 1일부터 제조업의 교통운수, 건축, 통신서비스 등 부문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보다 1%p 낮출 예정
  - 또한, 중소기업의 세금면제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고부가 설비제조, R&D 서비스업의 공제세액 조기 환급도 실행하여 연간 4,000억 위안의 세금부담 경감 예정
  - 해당 조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 또, 시진핑 주석은 4월 보아오(博鳌)포럼을 통해 외국자본에 지분제한을 뒀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분야에서 단계적 개방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의 주요 고체폐기물 수입추이 >  
(억 달러)

수입처	'15	'16	'17	'18.2
對 세계 (증가율)	44.9 (-32.3)	40.2 (-10.4)	35.8 (-11.0)	0.1 (-98.7)
對 미국 (증가율)	4.2 (-35.6)	3.6 (-15.8)	3.1 (-11.4)	0.0 (-99.2)
對 한국 (증가율)	1.3 (-28.4)	1.0 (-24.7)	0.8 (-15.2)	0.0 (-99.0)

자료 : KITA 자료로 HRI 재구성.

< 올해 중국 제조업부문 감세정책 >

구분	주요 내용
효과	- 연간 4,000억 위안(약 68조 원)의 직접적인 감세 효과 기대
1. 증치세 (부가가치세) 개편	- 제조업 : 17%→16% - 교통운수, 건축, 통신서비스 : 11%→10%
2. 중소기업 납세기준 (매출액) 개편	- 공업 (제조업, 광업, 에너지공급업) 분야 : 50만 위안→500만 위안 - 상업서비스 분야 : 80만 위안→500만 위안
3. 공제세액 조기 환급	- 고부가 설비제조업, R&D 서비스업의 공제세액 조기 환급

자료 : 國務院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해당.

4) 고체폐기물은 폐금속(HS2619, 2620) 및 폐플라스틱(HS3915), 폐섬유(HS5103, 5202, 6310) 기준임.

- 또한, 금융부문에서는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은행, 보험 등을 외국계 자본에 개방할 것에 대한 11개의 조치를 전격 발표
  - 이번 금융 개방 로드맵은 올해 안으로 11개의 구체적인 개방조치를 담고 있어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이 빠르게 진전될 예정
  - 특히 은행, 보험, 증권, 자산관리社의 對중국 진출문턱이 대폭 낮아져 외국계 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이 용이하게 됨
  - 또, 이번 조치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진출이 더딘 한국계 금융사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올해 중국의 금융부문 개방계획 >

실행 예정시기	주 요 내 용
수개월내	1) 외국계 은행/자산관리社 출자비율제한 폐지 등 2) 외국계 증권/기금/선물/생명보험社 출자비율 확대, 3년內 제한 폐지 3) 중외합작 증권사의 주주 자격규정 완화 4) 5월1일부터 증권거래소 간 주식거래의 1일 거래한도를 3배 확대 5) 외국계 금융사에 보험대리업무 개방 6) 외국계 보험중개社의 업무범위 확대
올해 중	1) 자동차금융, 금융중개, 소비자금융 등에서의 외국계자본 합작 장려 2) 금융자산투자관리社/자산관리社 외자 지분한도 폐지 3) 외국계 은행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 4) 중외합작 증권사의 업무범위 제한 폐지 5) 외국계 보험社의 직접적인 중국시장 진출 가능

자료 : 中國人民銀行 자료로 HRI 재구성. ※ 자세한 내용은 [참고표 참조]

- 더욱이, 중국 수도권 지역 제조업 배후기지인 숭안지구(雄安新區)와 최대 자유무역지구인 하이난자유무역항(海南自由貿易港)에 대한 개발·개방 계획도 발표
  - 중국은 지난해 숭안(雄安)지구를 수도권 최대의 스마트시티(첨단IT, 교통, R&D, 첨단제조 등)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
  - 해당 계획은 중국 육상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내륙 배후 제조업 및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임
  - 또, 올해 4월에는 개혁개방 40주년(2018년)을 맞이하여 하이난(海南)을 해상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배후 물류기지, 서비스(금융, 관광 등)기지로 육성 계획
  - 하이난은 중장기적으로 홍콩을 대체할 만한 국제자유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해 2035년까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금융·농산품 거래기지로 육성될 예정

< 중국 송안지구 및 하이난자유무역항 개발계획 >

구분	주요 내용	
송안지구 (雄安新區)	개요	- 설립일 : 2017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개발지구 설립 - 위치 : 중국 허베이성(中國河北), ※ 베이징과 120km 떨어진 위치 - 면적 : 2,000 km <sup>2</sup> (최종개발 목표)
	개발 목표	- 육상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내륙 배후 제조업 및 물류기지로 육성 - 중국 수도권 최대의 스마트시티(첨단IT, 교통, R&D 등)로 개발 - 제2의 선전(深圳)으로 육성하여 자동차, 기계장비, 통신장비 등 고부가 제조업기지로 건설
하이난 자유무역항 (海南自由貿易港)	개요	- 설립일 : 2018년 4월 13일 개발계획 공표 - 위치 : 중국 하이난성(中國海南), ※ 중국 최남단 섬지역 - 면적 : 35,000 km <sup>2</sup> (하이난 전체)
	개발 목표	- 해상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배후 물류기지, 서비스(금융, 관광 등)기지로 육성 - 2020년까지 자유무역실험구 대외개방 확대, 2025년까지 자유무역항의 제도 개선 완비, 203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항구로 개발 - 중장기적으로 홍콩을 대체하여 국제수준의 에너지·금융·농산물 거래기지로 육성

자료 : 中國雄安官网, 海南省人民政府网 자료로 HRI 재구성.

【참고】 올해 중국의 금융부문 개방계획

구분	주요 내용
수개월내 실행예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자 은행자산관리社 출자비율제한 폐지, 외자은행 在中 지점 및 추가 독립법인 설립 가능</li> <li>2) 증권기금선물생명보험 출자비율 최대 49%→51% 상향, 3년내 제한 폐지</li> <li>3) '합작 증권사의 중국내 주주 중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증권사 포함' 규정 폐지</li> <li>4) 5월1일부터 후구통(滬股通) 및 선구통(深股通) 1일거래 한도 130억→520억 위안 상향, 강구통(港股通) 105억→420억 위안으로 상향</li> <li>5)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사의 在中 보험대리업무 가능</li> <li>6) 외국계 보험중개社의 업무범위를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개방</li> </ol>
올해 중 실행예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금융리스자동차금융금융중개소비자금융 부문에서의 외국계자본 합작 장려</li> <li>2) 상업은행이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관리社/자산관리社 외자 지분한도 폐지</li> <li>3) 외국계 은행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li> <li>4) 중외합작 증권사의 업무범위 제한 폐지</li> <li>5) 외국계 보험社 설립전 '2년간 在中 대표처 설립필수' 규정 폐지</li> </ol>

자료 : 中國人民銀行 자료로 HRI 재구성.

## ⑤ 종합평가

○ 최근 중국은 소비국가로의 전환 가속화와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금융 부문의 대외개방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발지구 및 자유무역항구 개발 정책도 확대

## - 소비국가로의 전환이 가속화

-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기반의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입 소비재의 수입관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
-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과 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기반 쇼핑여력의 확대에 사업기회 가능성도 상존

## - 건설부문의 신규투자가 둔화

- 중국은 부동산부문 신규투자 둔화되고 있고 투자의 효율성도 저하 추세임
- 따라서, 중국 부동산 시장 '조정단계'에 對 중국 철강재 등 중간재 수출 타격 가능성과 더불어, 현지진출 기업들의 매출실적에도 영향 받을 가능성 존재

## - 통상갈등 격화로 교역환경 악화 가능성 상존

- 주요국과의 중간재 거래가 꾸준히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올해 들어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심화되고 위안화 가치도 절상기조로 돌아서면서 수출환경이 악화
-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해 철강재, 반도체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또한, 중국 중간재(냉연, 열연, 철근 등)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경우 글로벌 중간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내 업체 채산성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 - 산업정책 부문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제조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금융시장 개방, 경제개발지구 설립 등 개방과 개혁을 추진

- 환경정책 강화로 인해 단기간 한국 등 국가의 일상 환경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 제조업부문 세금부담 경감, 친환경 수출입정책 등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우리 제조업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있음
- 외국계 자본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이 빨라지면서 우리 금융사의 對중국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 경제개발지구, 자유무역지구의 설립으로 향후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육상, 해상 프로젝트가 가속화 될 예정

< 2018년 1분기 중국경제 주요이슈의 현황과 의미 >

구분	현황	한국에 대한 의미
소비	-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증가 - 온라인 기반의 소비가 급속 성장 - 주요 소비품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환경개선 기대 - 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기반 쇼핑여력의 확대에 사업기회 가능성이 커짐
투자	-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 - 부동산부문 신규투자 둔화	-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부동산 연관산업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이 상존
수출	- 주요국과의 수출 급증 - 단, 對美 통상갈등과 위안화 가치 절상에 통상환경 악화 상존	- 미중 통상갈등이 격화될 경우, 글로벌 중간재 (냉연, 열연, 철근 등) 가격 하락에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가능성도 있음
산업 · 무역 거점	- 환경정책 강화 - 금융업 개방 가속화, 제조업 부문 세금부담 경감 - 제조업기지, 자유무역항 개발	- 환경정책 강화에 단기간 한국 등 국가의 일상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 우리 금융업의 對 중국 진출 기회 확대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우리 제조업과의 경쟁 심화 예상 - 경제개발구, 자유무역구 개발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3. 시사점

○ 2018년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은 대외개방 확대 등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중국경제에 나타날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에 적극 대응 필요

- 첫째, 중국 내수시장의 질적 확대에 따른 對 중국 투자전략 마련 필요
  - 중국경제가 소비중심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부품중심의 對 중국 수출구조를 소비재, 고부가가치 부품 중심으로 전환 모색
  -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중국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별 소득 및 소비 성향에 맞는 제품 포지셔닝 및 가격 전략 등 맞춤형 진출 전략 마련
  - 아울러 소비재 등 내수확대를 겨냥한 품목 다변화 전략도 필요할 뿐 아니라, 對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매력이 높은 신흥국시장 개척 필요
- 둘째, 중국 부동산 투자 둔화에 따른 對 중국 중간재 수출 타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상응한 전략 마련도 필요
  - 중국은 올해 주택 등 부동산분야에서의 투자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큰 만

- 쿼, 철강, 등 관련 對 중국 수출산업의 전략도 수정이 필요
  - 또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내 시중 유동성 축소 등 금융경색 발생에 대비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책도 검토 필요
- 셋째, 글로벌 통상갈등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함
- 미중 통상갈등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석유화학, IT제품 등의 對 중국 수출 감소가 불가피
  - 따라서, 對 중국 교역의존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일시적 해외진출 보험과 무역 금융 대출제도 확대 고려
  - 주요 수출 품목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 필요
  - 또한, 중국과 한국 간 미니 FTA(도시 간 FTA)를 추진하여 지역기반의 교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중국이 외국계 및 자국 기업에 친화적인 금융·제조업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에서의 기회활용과 제조업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 국내 산업의 R&D역량을 강화하여 제조업 부품소재 국산화 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산업 인프라시설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적 기반 필요
  - 더불어, 고부가가치형 중소 제조업체를 적극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중국의 경제개발구, 자유무역항 개발 정책에 편승하여 對중국 진출의 전환점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음
  - 또, 한중간 서비스·투자 추가협상도 네거티브리스트 등 후속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對중국 진출 전략에 적극 활용 필요

중국경제팀 천 용 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